

SKC, 태양전지 필름은 내게 맡겨라!

수원에서 EVA 시트 생산 개시 ... PET필름 · 불소필름까지 3종 공급

SKC가 태양전지 필름소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.

SKC는 태양전지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불소필름과 EVA(Ethylene Vinyl Acetate)시트를 동시 개발하고 수 원공장에서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.

이에 따라 SKC는 대량 생산하고 있던 기존의 태양전지용 PET(Polyethylene Terephthalate)필름에 이어 불 소필름과 EVA시트까지 태양전지용 3종 필름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과 생산설비를 갖추게 됐다.

SKC는 태양전지용 필름소재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2012년에는 태양전지용 필름 매출 1900억 원 을 달성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15%로 끌어올릴 계획이다.

박장석 사장은 “태양전지에 들어가는 3가지 종류의 필름 소재를 공급하는 세계 첫 메이커가 됨으로써 세계 일류 필름 제조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게 됐다”고 말했다.

또 “세계경기 침체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지만, 태양전지용 필름소재 사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투 자를 아끼지 않겠다”고 강조했다.

SKC는 태양전지 필름소재를 모두 국산화함으로써 공급부족을 해소함은 물론 미국, 일본에 의존하던 핵심소 재를 대체해 국내 태양전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태양전지용 필름 시장은 태양전지 산업의 발전과 함께 2008년 4200억원에서 2012년 1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30%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.

EVA시트는 태양전지용 봉지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Mitsui Chemicals, Bridgestone 등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 하고 있다.

세계 시장규모는 약 2700억원으로 수요가 30% 이상 성장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2/04>